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4권 43호(가해) 2014.9.21

[묵상]



천사들도 한국순교자들 대축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네

서소문 형장 가까운 곳에 눈물다리라고 하는 누교(泪橋)
흘러서 똑똑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흘리지 못하고 눈에 가득 꺾어두어야 하는 눈물
순교자들의 가족들은
절대 울거나 통곡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이 다리에서 가족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듣게끔 허락.
옛날처럼 하느님을 배반하라고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지만
세속과 마귀와 육신이라는 커다란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문이나 총,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마귀의 온갖 유혹들이지요.
언제 하느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세,
변함없는 기도,
하느님께 대한 항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영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신임순 안나, 이철우 야고보 (생)이종원 베드로 & 이룬다 아네스, 이 마태오, 이영희 카타리나, 이주는 아네스, 황인종 성실, 정동호 하상바로, 이지영 카타리나, 박진수 스테파노,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3. 교회와 성령

3) 진리와 자유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1코린 12,3 참조)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1요한 4,2; 5,6)로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서 활동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느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의 영”(1요한 4,3)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거짓 영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영들을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1코린 12,10)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동시에 참된 자유를 선사하시는 분이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이 자유는 한편으로는 ‘율법에서의 자유’ (로마 7,1-6; 갈라 4,25-31)를,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로마 6,7.15-23; 8,2; 갈라 4,13-14)를 뜻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를 꺼려하였다. (사도 10,11-14) 하지만 성령의 인도로 이방인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갔고, 성령께서 그 집안에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 (사도 10,19-48)

이방인 선교를 가능하게 해 주신 성령께서는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사도로 뽑아 세우시어 이방인들의 선교를 맡기시고 (사도 13,2), 그들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사도 16,6)

초대 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에 따른 충실한 결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속하지 않은 양들도 데려와서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되기를 원하셨고, (요한 10,16)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마태 26,28)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민족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에페 2,11-14)

그렇지만 본래 이방인에게 폐쇄적이었던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용기와 자유가 요구되는 새로운 결단이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러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실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계속>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 (Wisdom) 3,1-9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라.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곁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로마서 (Romans) 8,31-3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 (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39	343	340
봉헌	394	259	264
성체	418	280	292
파견	392	108	339

시간 좀 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난 8월16일 시복된 124위 복자(福者) 탄생과 더불어 1984년 시성된 103위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자랑스럽고 행복한 신앙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들의 당시 신분계층을 보면 농민, 공인(工人), 역관(譯官), 군인(軍人), 관리, 무직(無職)의 여성, 성직자, 회장(會長)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역관으로 성직자 영입을 위해 힘쓰던 유진길의 아들이었던 유대철 베드로(1827~1839)는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당시 13세)입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그의 마음속에는 순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 스스로 관가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좀 더 긴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머지 시간을 하느님께 맡겨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님(1821~1846)도 20대 나이에 신부가 되어 1년 남짓 사제 생활 후 순교의 길을 선택 하셨습니다.

또 다른 모든 순교자분들께서도 결국 이 세상의 시간을 기꺼이 자신을 위해 남겨 두지 않고 내어 놓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나머지 인생과 더 누릴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시간을 봉헌하는 것이 순교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에 아주 인색합니다. 누군가에게 시간 좀 내어 달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짝이 없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입에 붙어있는 말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등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시간 없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바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중요 인사가 된 착각조차 즐거워(?) 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시간 쓰기에 흠뻑 빠져서 삽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요리조리 골목을 헤매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당이 조금 외진 곳에 있고, 주차가 좀 힘들고, 걷는 시간이 걸린다면 너무 일찍 성당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술 한 잔 하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 가볍게 흘러도 아깝지 않고,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시간도 없고 허리도 아픈 것 같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군가 어려움을 말해줄 때는 왜 그리 바쁠 것 같은 일들이 머릿속 가득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뵙죠...' 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인색함'은 우리 삶을 서로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조금씩 더 내어놓도록 합시다. 우리도 순교자의 후예답게 '시간 순교'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삭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강귀석 신부 / 명일동성당 주임

배낭을 꾸리다가

70여 일 여정을 위해 배낭을 싸는데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10kg가 넘습니다.
잘 숙성된 포도주는 다른 것 없이
오로지 포도만으로 그토록 깊은 맛을 내는데
사람은 잠깐의 여행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군요.
그렇다고 포도주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느냐 하면
그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순교자 성우,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선교
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오늘 주일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안내

- 미사시간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30분
-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휴강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 : 본당에서 캐더링으로 전신자를 위해 준비합니다.
- 구역별 장기자랑 : 1시30분 시작
- 장기자랑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크리스탈 목주,
 끝까지 남아계시는 분들에게 본당의날 기념타월 증정합니다.

◆순교자 성월특강

- 일시 : 9월28일(주일)오후1시
- 장소 : 본당
- 강사 : 김재현 성우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성당)

◆카이노스 성장세미나...대상: 기초성령세미나 이수하신분

- 일시 : 10월3일(금)오후4시~5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김태광 아오스당신부(팔로티수도회)
- 참가비 : \$100
- 신청 :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요셉회 9월 모임안내

본당의날 행사 관계로 28일 11시미사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 장소 : 강당

- 문의 : 요셉회 회장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제74차 M.E 첫 주말신청 받습니다...마감 9월28일

- 일시 : 10월3일(금)~5일(주일) 2박3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 대상 :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원하는 혼인부부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하느님의 자녀보호(Protecting God's Children for Adults) 교육**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L.A.대교구 방침으로 이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고 또한 대교구에서 요구하는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이기에 더욱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본당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교육을 다음과 같은 날짜에 시행합니다.

- 영어 Virtus Training : 10월11일(토)오전9시~12시
- 한국어 Virtus Training : 10월12일(주일)오후1시~4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멕시코 선교용 학용품 수집...사무실내 지정공간

- 기간 : 10월 말까지 사무실내 지정장소
- 품목 : 모든 학용품및 가방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 성전 창호개선공사...약 2개월간 공사 예정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1일(주일) * 본당의날 행사
- 9월28일(주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샌드위치 (11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형

교무금	권태만	김옥보	김정희	김현숙	민기남	박광자
	박주현	안민수	안태갑	엄영희	오명섭	오수인
	유석영	이일길	정열모	조준제	진영태	최의수
	최재영	황인중	한길선	테		
						합계 : \$2,120
주일미사 현금 : \$2,941						한남체인기부 : \$300

성전헌금	권태만 김정희 김현숙 민기남 박광자 박주현 안태갑 오수인 정열모 조준제 최재영 황인종 한길선례	합계 : \$880
감사헌금 : \$50(정 미카엘라)		

공지사항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주임교사들과 함께 초,중,고등부의 세부 연간계획, 그리고 주일학교에 궁금하신점에 대해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5일 (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일학교 F.I.G.S.Jr. & F.I.G.S. Lock-in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각각 다음 날짜에 락인을 갖습니다.

- F.I.G.S.Jr.(중등부) : 10월10일 (금) 오후 6시 30분 ~11일(토) 오전 10시
- F.I.G.S.(고등부) : 10월24일 (금) 오후 7시 ~25일(토) 오전 10시
- 기본준비물 : 세면도구, 침낭, 여벌옷, 채킷

◆ 한국학교 공지사항

- 오늘 주일은 본당의날로 휴교이지만 얼마 남지않은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은 정상 수업합니다.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어 청년 피정 2014 Forts in Fide Young Adult Retreat "Sacred Silence"

This is a general retreat for English speaking young adults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Southern California. Past 2 years about 70 people participated in this great opportunity to renew one's faith and meet others.

- Date : Oct. 17(Fri)~19(Sun)
- Cost : \$ 100
- Ages : Single Young Adults -21 years old and up
- Location : Kamp Kuper, Escondido, CA
- Registration Deadline : Oct. 5th (Sun)
- More INFO : Helen Wie (helenwie7@gmail.com)

◆ 성삼한인성당 35주년 기념 바자회

- 일시 : 10월4일(토) AM11:00 ~ PM 09:00
10월 5일(주일) AM11:00 ~ PM 05:00
- 장소 : 성삼한인성당 주차장 및 별관
- 행사 내용 -가전 및 전자제품, 의류, 가구, 잡화(신상품및 기증품) -먹거리 장터, 경매, 각종공연및 장기자랑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티켓은 본당사무실에 위탁판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991-4838 9/20(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9/21(일) 본당의날 행사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테레사 634-6923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3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이 복임엘리자벳 905-2225 9/15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금자 테레사 749-3151 9/13(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408-1443 9/12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9/12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9/6(토) 정오12시 성당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유현주 마리아막달레나 617-3568 9/9 (화)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의 날 행사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 <4> 박취득 라우렌시오(1769?~1799)

...어떤 사람도 천주의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지황 사바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1797년 정사박해 때 자신에 대한 체포령을 피해 은신했던 박취득은 아버지가 대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면천 관아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엄중한 문초와 혹독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사또께서 오늘 당장 저를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 교(敎)를 헛된 미신이라 하시니 저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주십시오. 세상이 마칠 때 모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는 양반과 서민, 임금과 백성의 구별이 없이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주 성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분은 과거와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주 예수와 그의 성인들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발밑의 땅이 꺼지며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잠겨 이 세상의 괴로움보다 천만 배나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고 소용이 없을 것이며 각자는 자기의 행실에 따라 응보를 받을 것입니다. 사또께서 저를 죽이기를 원하시니 이제는 제 몸을 뒤집어 놓고 목을 쳐서 당장에 죽여 주십시오.”

그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핏 보였습니다. 이 발원은 약간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취득은 일천사백 대 넘게 맞았고,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고 다시 옥으로 끌려 들어온 박취득은 “나는 굶겨도 죽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목을 매면 죽을 것이요.”라고 옥졸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튿날 밤에 교우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보니 모든 상처가 기적적으로 나아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를 요술이라고 생각한 옥졸이 새끼줄로 그의 목을 졸라 죽였으니, 그때가 1799년 4월 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 가량이었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순교자 묘지는 예비 신학교

내가 다니는 본당에 형제 사제들뿐 두 집안이 있다.궁금해서 두 분의 어머니께 물었다. “어떻게 한 명도 어려운데 두 아들을 모두 사제로 만들었어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자주 다녔을 뿐입니다.”

이웃에 살던 두 집안은 틈만 나면 어린아들 4명을 데리고 함께

전국의 성지순례를 다녔다고 한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두 집의 아들 4명 중 가장 큰 형이 복사단에 들어가더니 줄줄이 복사가 되었다. 대학갈 무렵 먼저 복사가 됐던 형이 신학교를 갔다. 나머지 동생들도 뒤따라 신학교를 갔다. 그리고 4명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국내외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우리 나라 성지는 거의 순교자들의 무덤이거나 사형터다. 두 가족은 성지에서 순교자의 발자취를 더듬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가는 차 안에서 순교자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를했을 것이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철부지 아이들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사제가 됐다. 무덤과 사형 터가 ‘예비 신학교’ 역할을 한 것이다. 두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아들을 둔 나는 왜 그리 못했는가, 놀이시설과 관광지보다 성지순례를 자주 다녔다면 두 아들의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지에서 순교자의 삶이 적힌 안내문을 읽으면 가슴이 아려온다. 그 어린 나이에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천주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건만 어린 순교자들은 망나니의 칼을 받았다. 그 어린 순교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순교 영성은 무엇인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의 세파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인 삶에 충실한 것이리라. 견디기 힘든 십자가가 다가올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일이 아닐까. 이론바 피 흘리지 않는 ‘백색 순교’다. 박해시대처럼 피흘리는 ‘적색 순교’는 할 수 없지만 매일 우리가 겪는 작은 불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순교적 삶이다.

올해의 순교자 성월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 반열에 오른 것이 한 달여 전이다. 한국교회 순교자가 시복된 세 번째 행사지만 한국에서 거행된 첫 시복식이다. 게다가 교황님이 직접 오셔서 시복식을 주례했으니 더 큰 영광이다. 9월 순교자 성월이 여느 해와 달리 더욱 각별한 이유다. 순교자 성월이 가기 전에 순교 성지를 찾아보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 김 상 진 요한 / 중앙일보 기자

<전례 상식>

하루에 몇 번이고 성체를 영하면 그만큼 복을 더 받나요?

☞ <교회법전> 917조에서는 “성체를 이미 영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체를 많이 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우들을 올바른 신앙 생활로 이끌어 주기 위한 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행위에 있어 교우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교회가 정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옳바르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